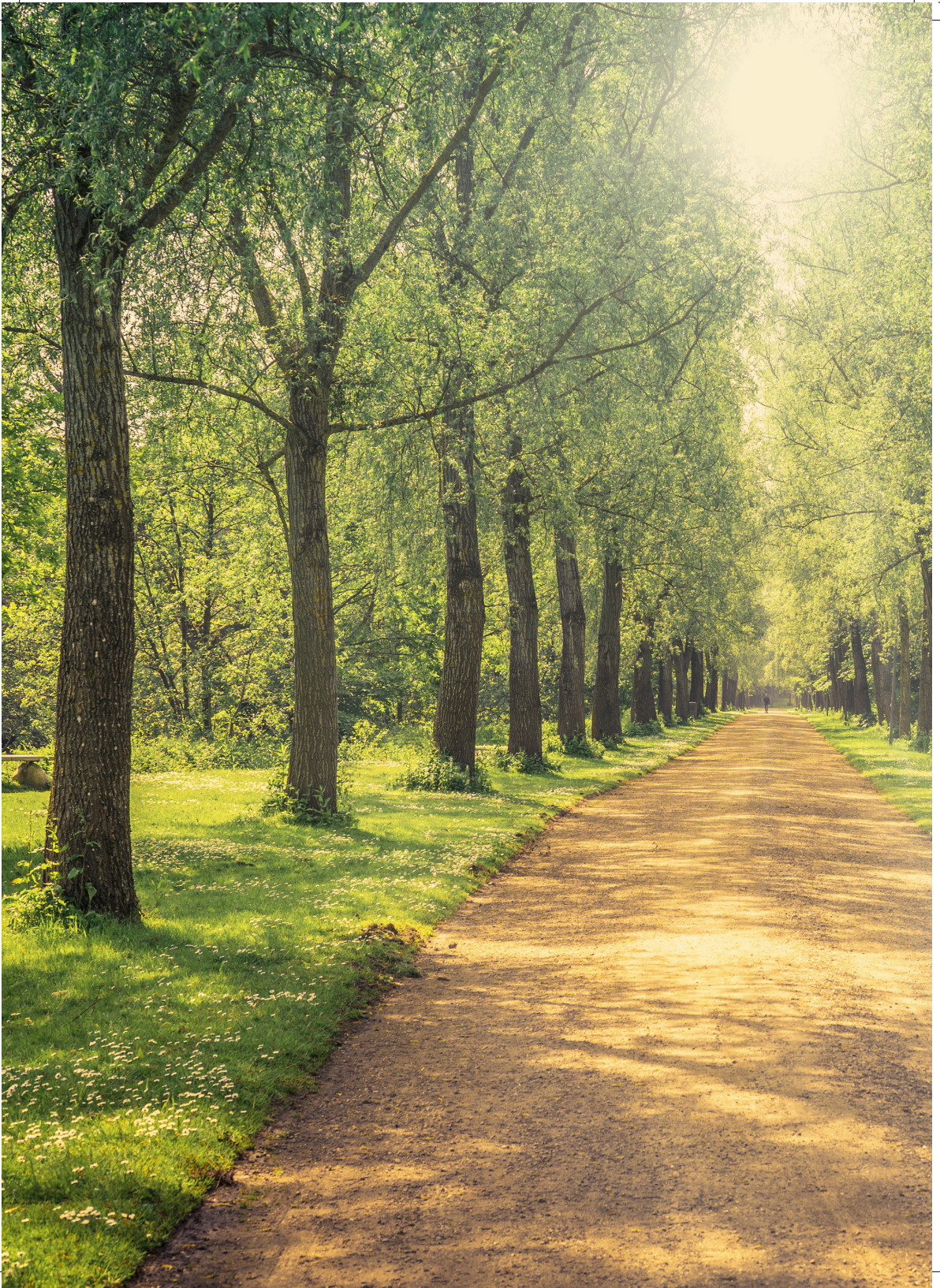






독후감 수상작 • 최우수상



바른길을 걷는 건강한 대한민국



바른길을 걷는 건강한 대한민국



“바른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9]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만나는 바른길과 굽은 길 사이의 갈림길은 한 개인 혹은 조직이 나아가는 길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두 갈래 길 사이에는 청렴이라는 이름의 이정표가 있다.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양심, 규정을 지키는 공정함,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의식, 부당한 혜택을 거절하는 결단력,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직업윤리, 불법에 동참하지 않는 용기도 바른길을 가리키는 청렴의 다른 이름이다. 멀리 돌아가는 듯하나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이끄는 바른길을 선택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말로를 짚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경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유효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굽은 길을 제도적으로 폐쇄했다. 확연하게 줄어든 연말 접대문화 덕에 야간 운행을 그만두고 불면증이 사라진 택시운전사, 매년 무리하게 보내던 거래처 선물 부담에서 해방된 영세 달력공장 사장님, 재계약을 위한 발주사 접대 대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갖게 된 회사원 등 수기의 사례들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의 면면들을 보여준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답례떡을 남겨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 퇴원 환자로 인해 난처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는 해당 법이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답례 문화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를 남긴다. 선물 받은 사람의 난처함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느라 겪은 고생을 알게 되면 제공자는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교정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른길로 이끄는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아’, ‘당사자들끼리만 조용하면 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라는 정당화와 조소, ‘친구 좋다는 게 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내 아들 덕 좀 보겠는데’라며 학연, 지연, 혈연 등 관계를 앞세운 회유와 협박이 존재한다. 하지만 굽은 길이 곧 지름길이라는 설득에 응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안에 노폐물을 쌓아 탁한 피를 돌게 하는 일이며, 이러한 문제가 끓아 터지면 극심한 고통과 비용이 따르는 대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기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렴을 실천하여 자신과 조직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들이다. 외압 혹은 내면의 유혹에도 바른길을 걸으며 주변에 투명한 영향력을 끼

친 이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청렴은 부당한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합리한 재계약 조건이 이제껏 선물과 인사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선배들의 지적에도 ‘관행이라는 사회적 비양심’에 동참하지 않은 방과 후 교사, 청탁금지법이 없던 시절에도 일절 선물을 받지 않던 교사는 기존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선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받지 않음으로써 청렴을 실천했다. 이처럼 예민한 문제의식은 매사 신중히 근신하는 개인의 몸가짐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조직의 인습을 끊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온 군 고위직의 부대 부식 무단 반출에 대한 한 군인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부대 전체의 썩은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된 사례는 그런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둘째, 진심은 물질의 가치를 넘어선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박장 주인의 뇌물을 단칼에 거절하여 뒷돈이 통할 것이라는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꾼 경찰관, 학생들이 떳떳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충지를 받지 않은 선생님의 사례는 대가성 물질에 관한 이야기지만 대가성 없이 순수한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거둬준 도움에 감사와 미안함을 담은 시민의 돈을 돌려준 소방관,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뢰인들의 편지를 보물로 여긴 공익법무관은 그들에게 마음 그 자체로 충분함을 일러준다. 솔선하여 골목 청소를 하다 주운 돈 봉투를 고민 없이 지구대에 신고하고



사례금도 거절한 어머니와 스승의 날 선물 살 돈이 없어 들꽃으로 직접 만든 꽃다발을 건넨 아이를 모두 앞에서 따뜻하게 안아준 선생님도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진심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자신보다 승객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버스 기사의 마음은 승객들의 마음으로 전달되어 사고에 대한 항의가 아닌 감동의 박수를 받았다.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유권자의 마음을 돈으로 구걸하지 않은 아들이 학생회장에 당선된 사례는 진정성과 대비되는 물질의 한계도 보여준다.

셋째, 규정 준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승진을 빌미로 부대 물자를 빼돌리라는 부패한 상관의 요구를 거절한 군인은 규정을 지켜 일반 사병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장기복무 후 명예 전역할 수 있었다. 세금의 납부와 사용에서도 규정을 지키면 자신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증세를 막고 오늘의 복지국가를 지킬 수 있다.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신고한 중국어학원장, 실업급여 부당수령의 유혹을 이긴 여성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 치어들까지 잡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당장은 편해도 향후 모두가 잡을 것이 없어진다는 어부의 해안은 규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생태계까지 살리는 상생의 장치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청림의 실천은 때로 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각자 맡은 구역만 담당하는 개인 방역 특성상 근무 태만 및 사사로운 청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으나 양심을 지키며 성실히 일한 청년, 친분을 앞세우며 사사로이 구급차를 얻어 타자는 지인의 요청을 거절한 소방관은 동료들의 빈축을 사거나 청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면전에서 욕을 먹어야 했다. 이처럼 청렴의 실천과 호혜적 관계의 유지라는 가치의 대립을 어떻게 원만히 풀어낼 수 있을까?

먼저 선물, 특히 거절이 애매한 음식을 받게 된 경우를 살펴보자. 음식을 대접받은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의 수명 명부를 빼돌려 열십(+)자를 천(千)자로 조작해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음식은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관찰관들에게 가져온 학생의 음식에 ‘정당한 값’을 치러 문제 상황을 해결한 사례는 무릎을 치게 했다.

다음으로 청렴의 가치가 설득되지 않는 가까운 인물을 상대로 청렴을 실천해야 하는 경우를 보겠다. 국립공원 매표소 직원으로서 입장객들에게 표를 팔거나 조계종에서 돈을 내고 발급받는 신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가족 사이에 이를 불필요한 돈 낭비로 여기는 노모와의 실감 나는 갈등은 공감함을 자아냈다. 결국, 어머니의 화를 돌우는 대신 몰래 신도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갈등상황을 우회하고 직업윤리와 효라는 가치를 모두 지켰던 그의 기지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마지막으로 부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부식 반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쾌해했던 대대장은 갑작스



러운 부대 내 사망 사건들로 모두가 당황스러울 때 구원투수처럼 나서서 무사히 수습해준 해당 부하 군인을 보며 그의 진의를 깨닫는다. 이는 그 어떤 사탕발림 말이나 뇌물보다 탁월한 업무처리가 상사에게 가장 큰 고마움과 감동을 준다는 간과하기 쉬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지금까지 수기들을 통해 청렴의 실질적 실천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내어 개발도상국들에 중요 참고사례가 됐던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굳게 막은 굽은 길을 뒤로하고 청렴을 실천함으로써 바른길을 걸어가 세계에 ‘선진 청렴 사례’를 남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그 중심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 있는 양심으로 부패를 걸러내고 대한민국에 맑은 피를 돌게 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





독후감 수상작 • 우수상



명령 불복종과 청렴



명령 불복종과 청렴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내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다. 이는 아마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저질렀던 잘못과 비슷했고 깨닫는 과정도 같았기에 그랬을 것이다. 내가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기 전 근무했던 학교의 영양교사와 다툼 일은 글속의 대대장과 중위가 다툼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평생 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교장과 영양교사의 직위를 비교하자면 아마 글속의 대대장과 대위쯤 될 듯하다.

“영양사 선생님, 오늘 직원들끼리 교내배구대회를 한 후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 예약이 여의치 않아 학교 조리실에서 음식을 좀 차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로 돈 30만원을 내밀었는데, 영양교사가 받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다.



“교장선생님, 학교를 관리하는 일은 교장선생님 몫이지만 조리실과 식당의 관리는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의 조리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급식실의 조리 종사원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급식 외에 다른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엄연히 그들의 임무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학교의 운영과 관리는 물론 학교 식당도 학교장인 내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자 영양교사는 한 가지를 덧붙이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직원들 회식을 위해 조리실에서 조리종사원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직원들이 먹었을 때, 식중독이나 기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은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교장선생님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교장선생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항명이었지만 결코 틀린 주장은 아니었다. 영양교사나 조리종사원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에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학교장은 영양교사의 인사권을 가지

고 있다. 그런데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불법적이라며, 명령은 받을 수 없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날 회식은 불발되었고 나는 직원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이후 나는 영양교사를 사사건건 닦달했으니 뺨땡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좁은 속을 가지고 있었다.

부식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목격한 대위가 부식 불법반출을 제재했으니, 우리 학교의 영양교사처럼 어찌면 상관에 대한 항명으로 비취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남자들이 군에 입대해 복무했으니 군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대위가 감히 대대장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청렴이라는 거대한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고서 대대장에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승부는 뻔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본다면 군대문화에서의 제국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맞설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 충동을 원인으로 부대를 떠나라는 대대장의 말에 대위가 또 한 번 덤벼들었으니 내가 경험한 군대 생활과 견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대장님. 왜 제가 이 부대를 떠나야 합니까? 대대장님이 먼저 떠나셔야죠? 잘못된 사람은 대대장님이시니까요.”

정말 글쓴이는 간이 부었는지 이젠 막가자고 덤벼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청림이라는 무기는 별 4개라도 당할 수 없는 최신 무기이기
에 대대장은 바로 ‘나가’라는 말로 꼬리를 내렸다. 우리가 나보다 높은 상
사의 잘잘못을 논하려면 전출이라는 모가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
위는 감히 그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글을 쓴 대위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일을 열심히 하
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성실’이라는 무기 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도 제
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걸핏하면 잔소리를 늘어놓고 후배를 뒤통하는
선배가 있다. 이런 사람은 상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동
료나 후배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글을 쓴 대위는 부대에서
발생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데 빈틈이 없었다. 그런 성실이라는 또 하나
의 무기가 있었기에 감히 상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상관들은 관행으로 부대 부식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빈틈이 없고 청렴했던 대위는 그러한 적폐를 과감히 뿌
리 뽑기 위해 대대장의 행위를 지적했던 것이다. 주어진 일에도 빈틈이
없고 청렴으로 무장한 그런 대위를 바라본 대대장도 결국은 깊이 느끼고
반성을 함으로써 청림사회로의 전진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료 반출이라는 뿌리 깊은 관행과 싸워 이기려면 다부진
마음으로 그동안 가지 않던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
수한 조직에서 청렴을 위해 가야할 험준한 길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감히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를 일소하고자 상관에 덤벼들었으니 글쓴이의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글쓴이에게도 믿을 수 있는 청렴과 성실이라는 최신무기가 들려져 있었으니 두려움이 덜했을 것이다.

요즘 4성 장군이 공관 병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예부리 듯 했다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심지어는 팔목에 호출기까지 차고 부름에 응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이 아니다. 그 공관에는 냉장고가 무려 9대였다 하니 벌려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냉장고는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산 공관의 비품이다. 그런 비품을 전출할 때마다 가져갔다면 후임자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냉장고를 다시 구입했을 것이다. 더구나 냉장고 9대를 가동하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 전기세는 누구 돈으로 냈을까? 이처럼 별을 4개나 단 장군도 부조리와 부정으로 평생을 살았는가 하면 대위처럼 청렴과 결백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하찮은 것이라 해서, 예전부터 관행으로 해오던 것이라 해서, 별을 4개나 단 장군이라 해서, 법과 도덕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병사들을 자기 하인 다루듯 하던 장군도 우리학교 영양교사처럼 아랫사람을 내 식구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별을 4개나 달고 제대 말년에 구설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학교장의 명령을 거역한 영양교사를 미워하고 서먹하게 지내던



나도 그녀가 일하는 것을 보니 대위처럼 성실하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 사과를 했다.

“김 선생, 김 선생 말이 맞았어. 돈도 얼마 받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일하는 조리종사원에 가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구나 학교의 조리시설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사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도 깨우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어디든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나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생활한다는 의지만 가지면 부정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나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저지르는 부정이라 해서 못 본 척 넘긴다면 이는 불의와 타협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청렴이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다 같이 주위를 돌아보며 법과 규칙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 ♡





독후감 수상작 • 우수상



작은 어둠들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모여



작은 어둠들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모여



밤이 이속해지면 철흑의 어둠이 초병(哨兵)을 감싼다. 월광 23%. 남아있는 달빛마저 얇은 구름에 흡여져버리는 밤이 도래하면 자그마한 유혹 하나가 슬그머니 초병을 찾아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졸음. 이 불가항력적인 생리현상 앞에서 어둠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태만을 가릴 무기만 같다. 사실, 눈을 뜨든 감든 달라지는 건 없다. 그저 제때 문제없이 교대하고 가끔 오는 순찰자만 교묘히 속이면 될 일이다. 어둠은 그렇게 초병을 홀로 방치한다. 어둠에 둘러싸인 그 세상에선 모든 문제는 자신과의 싸움이 된다.

초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나는 새벽녘 초소까지 올라가는 길에 낮에 읽었던 수기들을 곱씹어보았다. 어찌 보면 쉬운 일들이었다. 삼중망을 사용하지 않는 일, 회사의 내부 정보를 오랜 친구에게 유출하지 않는 일, 법적으로 도움을 드린 할머니의 '작은 성의'를 거절하는 일.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상당한 수준의 노동을 투입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 개인의 선택에 달린 일들이다. 그렇기에 후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쉬운’ 모든 일들은 실은 모두 결코 ‘쉽지 않다.’ 어떤 담당관이 고맙다며 아이스크림을 들고 찾아온 보호관찰대상자를 부담 없이 물리치겠으며, 어떤 장교가 상관의 면전에서 두려움 없이 그의 잘못을 고발하겠는가.

무엇이 문제인 걸까? 이 역설의 시작은 어디이고, 그 끝은 어디인가?

* * *

빛으로만 가득한 세상은 없다. 환한 낮에도 그림자란 어둠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법과 제도가 비추는 공간이 있는 반면, 그 것들의 성긴 틈 사이사이로 각 개인들이 누비는 자그마한 어둠들이 숨어 있다. 그곳은 정(情)이나 인연 같은 인간성(人間性)을 피우는 양분을 머금고 있기도 하지만, 초병이 마주한 어둠처럼 모든 문제를 자신과의 싸움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장이기도 하다. 창동역 앞 작은 포장마차, 어머니의 작은 골목, 살충제가 든 분무기를 메고 홀로 살피야 했던 좁은 주택가의 하수구. 모든 사연들은 법과 제도가 메울 수 없는 이 작은 어둠들 속에서 시작되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나만의 법과 잣대로 모든 일을 재단하는 그 내밀한 어둠들에는 언제나 자신과의 타협이란 유혹이 우리

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렴과 부패의 모든 차이는 여기서 비롯된다. 나의 어둠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느냐 마느냐. 수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이 단순한 기로에서 성사 될 리 없는 그 악수를 정중히 거절했다.

사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을 지조를 지키는 일, 희미하게 고동치는 양심을 따르는 일. 어둠 속에서의 줄음과의 사투 만큼이나 그것은 격렬하고도 절박한 개인의 투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이 치열한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것인가? 어떤 미지의 힘이 교묘한 그 합리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인도했으며, 거기에는 혹시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는 것일까?

* * *

왕도(王道)는 없다. 수기의 주인공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론이 있어 청렴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혹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절박함이 한 사람을 청렴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수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상(理想)을 품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바람직하다, 모두 나름의 포부를 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작은 어둠들을 밝히고 있었다. 불의한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군수장교의 굳은 기개, 사소한 춘지조차도 '다음'의 선례가 된다는 보호관찰관의 든든한 고집, 정정당당한 유세만이 결국엔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아들의 의연함. 이들 모두에게는 각자가 꿈꾸는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을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청림은 그들에게 하나의 선택지였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의무와도 같았다. 그들을 이끈 건 세상에 대한 '욕심'이었고, 취사장의 부식을 교묘히 반출해가는 간부, 아이스크림이나 치킨을 거리낌 없이 받아먹는 공무원, 뒤에서 몰래 뇌물을 돌리는 선거 문화는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일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림은 오직 실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렴한 사회를 바라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가 암에 걸려 생활비가 빠듯해진 상황이라면 실업 급여를 편법적으로 타려는 유혹에 시달릴 수 있으며, 매일 같이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시달림을 받는다면 그의 뇌물 요구에 그냥 응할까 흔들릴 수도 있다. 또, 모든 등산객들에게 신도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그 등산객이 어머니와 형수님일 때 차마 원칙을 강요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한다. 마음처럼 몸이 따르지 않을 때, 사회가 깨끗해지길 바라면서 도리어 자기 자신만은 예외로 두려는

그 비겁함을 발견할 때, 그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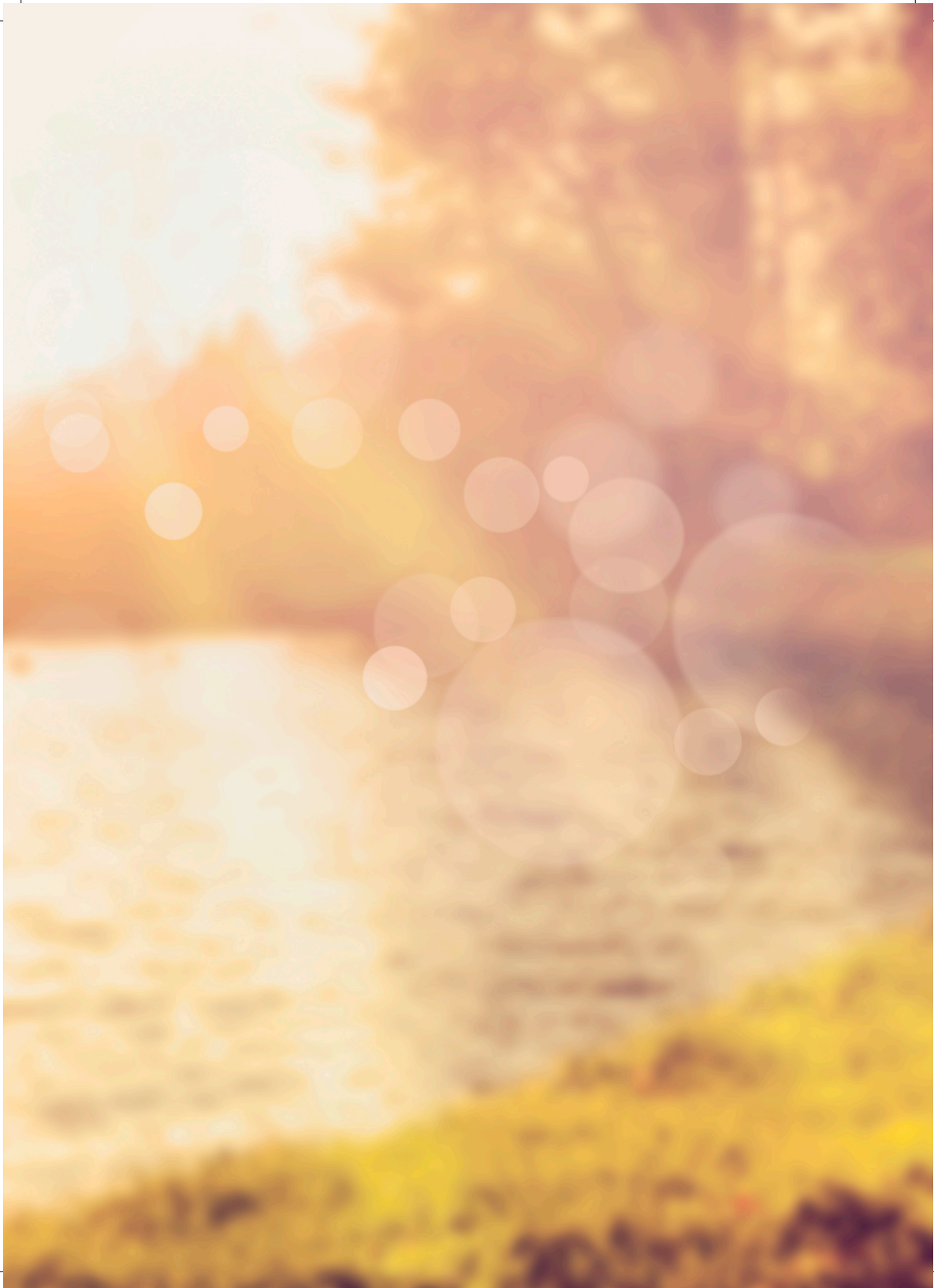
방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이 더러워져야 한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 환경미화원들은 밤낮을 악취와 땀에 절곤 한다. 그렇다면 청렴, 다시 말해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떨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술한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듯, 청렴한 사회도 시민들의 희생이 누적되며 완성돼간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인정하는 것이 실천의 시작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 한 사람은 하마터면 13년지기 친구와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될 뻔 했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또 한 사람은 상관모욕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속상관에게 직언을 날렸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 불편해져야하고, 귀찮아져야 하며, 때로는 냉혈한처럼 굴어야 한다. 이러한 ‘더러움’ 없이는 청렴이란 ‘깨끗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여 현재 자신의 조건적인 불리함이 청렴하지 않아도 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청렴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 나는 생각한다.

* * *

줄지 않기 위해 초병은 구차해져야만 간다. 허벅지를 꼬집고, 온몸을 비비 꼬고, 자신의 뺨을 세게 후려친다.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본디 번거롭고 구질구질하며 힘겨울 수밖에 없다. 밤하늘의 좁은 귀



통이를 비추는 차가운 별조차도 태양만큼이나 격렬하게 핵융합중이다.
간신히 뜬, 충혈된 초병의 두 눈이 밝히는 건 그 자신을 둘러싼 작은 어둠
뿐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작은 별들이 모여 하나의 큰 은하수를 이루듯,
우리가 각자의 작은 어둠들 속에서 그 은밀한 유혹들을 뿌리쳐나가며 작
게나마 주위를 비춘다면, 청림 사회라는 광명은 분명 그리 먼 일이 아닐
것이다. ♣





독후감 수상작 • 우수상



숲



작은 어둠들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수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에 처한 사람. 수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놀라웠다.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이 수기 제목에서 많은 것들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대, 직속상관. 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고치지는 못하는 곳이며, 폐쇄된 공간에서 암묵적으로 흘러가는 규칙은 사실상 법과 다름이 없다. 다수가 이 규칙을 따르고 행하는 입장이기에 이 글의 글쓴이는 외로이 혼자 버틸 수밖에 없는 ‘소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적 우위를 점하며, 분명 글쓴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난 돌이라 칭했을 것이다.

그 때, 소수였던 글쓴이는 많은 생각과 후회를 하였을지도 모른다. 바로 나처럼 말이다.



2014년 9월 나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현재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들었던 말이다. 당시 나는 육군 일병이었는데, 컨테이너 창고에서 선임 병사가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 다섯 명이 그 안에 있었고, 나는 옆드려 있었으며 선임 병사는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 선임 병사가 말했던 내가 폭행을 당하는 이유는 MG50, m60(둘 다 장갑차에 거치되는 기관총) 분해 조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질 못했다. 내가 그리 말하자 ‘그럼 배우려고 찾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선임 병사가 답했다. 나는 정비과 계원의 보직을 갖고 있었다. 나의 말이 핑계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정과 훈련을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었다. 계속되는 검열과 훈련에 우리 부대는 설 틈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누구도 나에게 분해 조립을 알려주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억울했다. 그리고 내게 벌어진 일은 정의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나는 정비과 부사관에게 이 일을 알렸다.

‘당시에 이러한 사례가 자연스럽게 만연되어 있으며 부패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는 군대 문화를, 우리 부대에서부터라도 변화를 갖게 하는데 미력하나마 계기를 만들겠다는 순진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이슈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나의 생각만큼은 많이 달라졌다. 악습을 꼭 이어갈 필요는 없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자.

나는 여기서 나의 동기인 박민국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분대장이 되지 못했다. 사실 권력에서 멀어지고 군내 정치에서 진 것이다. 그는 내가 폭행을 당한 그곳에 있었고 무엇보다 나와 같이 지낸 시간들이 많았다. 김해 태생인 그는 말투가 거칠었지만 자기 분대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었다. 나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바꾸자. 악습을 끊자. 보통은 자신이 겪어온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다른 이들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나 혼자는 못해. 네가 도와줘.”

이 짧은 말이 나를 감동시켰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겪는 삶을 말이다. 군대에서는 내부 고발자는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 생각하는 군대였다. 나의 안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런 나에게 그는 같이 변화를 이끌어나가자고 손을 내민 것이다.



나는 자부한다. 나와 그가 가장 위에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을 때, 가장 결집력이 뛰어났고 유대관계는 다른 소대와 비교 할 수 없이 좋았다. 일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소리가 없었다.

“왜 나의 선임 병사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했을까?”

아마 앞서 말했던 부분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군대라는 문화. 두 번째는 자신이 겪어온 악습이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임 병사가 나를 폭행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단지 내가 쉬고 있어서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박민국에게 이 말을 하자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왜? 숨도 쉬지 말라고 하지.”

나와 그는 소리 내어 웃었다. 지나간 일. 이미 바꿀 수 없는 일. 내가 전역할 때 그는 나에게 좋은 것만 가져가라고 했다. 나쁜 것은 여기다 전부 버리고 가라고. 나와 그는 그렇게 헤어졌다.

“미안하다 민국아. 이제야 버린다. 나쁜 기억들을 말이다. 그리고 고맙다.”

사실 이 수기는 내게는 영웅담과 같아서 가슴에 큰 울림을 줬다. 그리고 이 수기를 통해 나쁜 기억들과 좋은 기억들이 동시에 떠오르며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악습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글쓴이가 너무나 멋져보였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에 대한 답은 아직 내리지는 못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군대 문화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폐쇄되어 있는 그곳에는 계급이 전부고 힘이다. 1980년대에는 더 했을 것이다. 당시 올바른 행동과 신념을 지키고 살았던 글쓴이에 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협을 하고, 아무리 곧은 나무라 해도 강한 바람에는 부러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 글쓴이는 부러지지 않았다. 거센 태풍에도 그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서있었다. 그 나무 주위에 많은 어린 나무들이 자랄 것이고 많은 꽃과 풀이 자랄 것이다. 그 나무로 인해 그곳은 울창한 숲이 될 것이다. 곧은 나무로 인해 숲이 만들어 진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진정한 리더십이라 부르고 싶다. ♣



